



# 국제 자본에 휘청이는 우리 문화

## 한국문화와 시장개방

우리나라의 경제가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에 더욱 더 위기가 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수입개방이다. 이미 여기저기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수입개방의 부담을 확인하고 강력한 건의를 정부에 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듯 보인다.

매년 1천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80년대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쟁력이 최고로 높은 서비스산업, 농업 및 첨단산업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부문도 바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전제적인 합의보다는 관련에 의한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 관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11월16일 베른협약

효과를 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우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소급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UCC는 불소급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베른협약 제18조 1항은 '인구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저작물에 대해 소급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3항에는 국내법으로 불소급을 전제로 협약에 가입해 불이익이 생길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UCC가입 1년반이 지났음

회로설계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8개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저작권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적소유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시권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EC나 일본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결국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다면 기술선진국들이 소유한 각종 기술, 노하우 등에 국제규범이라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의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등의 기술수입국은 기술도입 자체가 어려워 지며 비용도 어마아마하게 증가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지적소유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문화적 기반의 흔들림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85년 정부의 외국인 국내직접 투자 허용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저작권 등으로 출판계의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면 외국인 영화산업등의 직접투자는

어느다.

영화인협회 산하 영화인권익옹호 투쟁위원회 손영철 위원장은 "서울 시내마타운의 11P직배상영을 기점으로 정국으로 직배영화상영이 확산되면 한국의 극장들은 미국영화산업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게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영화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렇게 됐을때 한국영화는 끝나다"라고 한다.

서울시내마타운의 극장화상장은 "직배영화상영금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태평양영화사의 '다이스리프'의 단상계개봉을 의식한 얘기이지만, 태평은 직배에 대해 차선의 배급방식으로 인식되어 오던 '비니엄개런티'라는 방식으로 구입 상영했으므로 직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직배반대세위에 나선 영화인들은 직배가 '미국영화의 한국문화화식'이라는 논외에도 그들의 생존권의 위기로 보는 인식속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문화시장개방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음반시장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중에 있는 라이선스 계약이후의 다국적 음반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미 EMI가 계동사와 7:3으로 합작한 EMI계동사가 음반을 출매했고, WEA, RCA, 폴리그램, CBS 등의 이른바 '빅5'의 계동판후 서울에 나 성음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실 EMI의 경우와 비슷한 합작 회사형태를 시작될 것이 라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80년 2백40억원 수준이던 음반판매액이 지난해에는 2백50억원의 음반이 성장하였고 앞으로의 시장의 이익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해 있다.

이미 과거와 같은 마스터테이프 방식의 음반이 직배가 시작되면서 2천만원 수준의 도매값이 3천만~3천5만원으로 파격인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URIM타결과 시장개방'이 두가지 지가 한가지인 문제가 그 대처방식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경제와 문화와 기타 모든 영역에까지 생애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문화부〉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

김하기 작 '완전한 만남'을 읽고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시인의 어느 시구가 떠오른다. 지금은 어둠 자욱히 파도도 밀려드는 새벽 시의 하늘. 그야말로 이렇듯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와 오빠는 새벽의 그 살인적인 일터를 나가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나는 평안히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서러운 새벽녘에 깃들 속을 돌아다니는 눈망울에 몇개의 의미로 맺혀버리고, 아득히 달아난 잠의 갈피사이로 김하기소설집 '완전한 만남'만이 뒤적인다.

지금도 비정황적자들은 특별사동(이탈사)에서 30~40년의 장기유고치루면서 통일을 기다리는 망부석으로 앉아있다. 조국의 내일을 찬란히 비추리라는 태양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의 일과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동지들간의 대화도 금지된 제한된 구역, 제한된 운동시간, 제한된 사상과 제한된 자유, 그런 '제한된'의 의미가 가장 제한된 곳이다. 비정한 좌익수들만을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채워놓고 골수나 빨갱이나 하며 비인간화시키는 전 주교도소 등지의 특사이다. 이 소설집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제한된 곳에서도, 서로 모리스 신호로 육성 없는 혼의 대화를 하고, 하루하루 치열한 자비판과 정세평가를 하며, 통일의 그날을 위한 망부석처럼 고통의 '상징'으로 서 있다.

나는 이들이 한탄되는 가난한 분단보존의 상징이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정치·사상적 자유가 없는, 이 족쇄체고도 땅의 땀을 물려주는 땅은 분명 어두운 시대의 감옥이다. 또한 시련당하는 민중들이 몇 포기씩 묶어 내일의 싸움을 위해, 오늘의 어둠을 걸으며 평가분석·비판하는 것은 영아의 좌수 아닌 좌수이다. 더우기 내일을 위하여 오늘 어느 외진 곳에서 파업과 투쟁을,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은 바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희망찬 모습으로 실천이다. 정말로 풀은 바람보다 먼저 울고 먼저 일어난다.

그 소설집은 소외와 고통당한 민중의 고민과 슬픔, 분노와 투쟁으로 가득차 있다. 그의 소설 '살아 있는 무덤'에서는, 특사에서의 허용되지 않는 맹변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한 분야에 대하여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다. 허용체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

“패배의 벽을 박차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현재상”

확정성 이론을, 서유럽에서는 동의보감을, 그리고 한영기에는 6개 국어를 통달했고, 김선명씨는 38년의 세계최장기 복역수이다. 또한 어떤 때에는 0.7명의 독방에 12~15명씩 집어넣어지는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킨다.

'해미'는 남편과 간첩의 이야기. '어느 수인의 풀은 아침'은, 북에 사는 아들이 남에 사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넘어왔다가 붙잡혀 아버지에게도 '간첩과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고문과 5년간의 징역을 살게 했다는 내용이다. '노역장 이야기'는, 인쇄공장 복역수의 눈물겨운 투쟁을 소재로 했다. 그외에도 제1회 임수경 통일문학상 수상작인 '완전한 만남'과, '빨리내리기'는 운동에 패배한 대학생이기를 실었다.

나는 이 소설집에서 '노랑불꽃'이 가장 심도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는, 바로 패배로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과 갈등속에서, 분노로 패배의 벽을 박차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현재상과 미래상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보안대-헌병대-군법재판-강제 징집-탈영-특사로 진행된 주인공 병모의 운명. 출감하는 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쓸쓸함과 운동의 회의감을 소재화하고 있다.

민자당분쇄 켈기대회의 날에 가본 학교에는, 놀랍게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대표단수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대신에 초대되는 장면은 대단한 극적전환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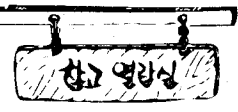
고립된 자기가 통일된 집단으로, 패배적 삶이 다시 운동하는 삶으로 전환된다. 그 영아 속에서 어둠과 습기찬 세월의 고통이 해소되면서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진폭장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멀리 떨어져 나간 성에서 하나하나 돌아와 투쟁의 선봉으로 나서는 것이 앞날의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이루어 내야 할 집단의 모습이다. 나는 이런 돌아옴의 눈물나는 풍경이 지면 속면이 아닌, 우리 경회하의 풍경으로 살아있으면 싶다.

이 길이 민족의 새벽을 향하여 내딛는 것이요, 민자당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통일의 길을 식민지 조국의 땅에 한발짝 걸어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외치고 누추한 곳에서 변함없는 구국의 열정으로 고통과 분단의 상징으로 자매매김하고 있는 비정한 좌익수들! 통일을 향한 진일보다 더 특사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비꾸어 말하면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날이, 바로 통일의 그날이 아닐까 한다.

강 정 구  
(국문·3)



기호학(記號學)은 인식론의 한 분야로서, 특정한 언어의 구체적인 기호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기호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룬다. 언어적 기호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것은, 인식을 통한 사회화(정교화, 저장, 의미전달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적 활동수단인 소리, 표식, 문자, 음파 등의 기호가 현대에는 특히 언어적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기호학

## 보편적 인식의 방법적

에서 체계화 되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과 문화의 상호교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해석학적 한계(hermeneutic distance)의 극복과, 더욱 전문성을 띠게된 학문적 용어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요청 때문이다.

또한 모든 특수과학에 그 기초를 제공하여 형식과학과 인문과학 나아가 자연과학에까지도 포괄한 통일화를 위해 중요한 자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기호학적 학문방법은 많은 분야에 그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영미철학의 분석철학자들은 일상언어(ordinary language) 분석에 의해 도출된 보편적 언어를 통해, 완벽한 세계관을 구성하려 하였던 만큼, 이러한 기호학적 학문방법이 현대의 학적풍토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직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진척된다면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명 곤 <본교대학원석사과정·철학>



문화와 탐방

'소리물결'은 대중과 가장 친숙할 수 있는 노래로써 노동운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고자 모인 지하철노조 노래패이다. 약육장소인 '문화공간'에서 만난 소리물결 회원들은 먼 지역에서 대거집결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소리물결은 지난 90년5월 '불법장소, 불법교육'이라는 이유로 지하철공사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린 문화공간에 3번째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다.

동대문 지하철의 구내에 위치한 문화공간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제공을 위한 장소이다.

## 노동청신과 노래의 조화

— 지하철노조 노래패 '소리물결' —

벽면에 걸린 제1기 노동교실 플랭카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단결투쟁'의 붉은글씨에서 폐쇄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리물결은 88년 노동조합의 첫 문화대동제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3·16파업기념행사 등 노조의 각종 행사와 타노조와의 연대공연, 지난 12월 세종대에서 열렸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과 같은 연합 공연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현재 1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소리물결은 '양심' 문을 개방하고

있어도 회원확보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라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내놨다.

소리물결 회장 박희석씨는 "여러 번 화교공연에 다녀보아도 노동자의 힘든 연수와 공연준비에 비해 학생들의 조직적 동원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라며 학생들의 좀 더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12월12일 지하철노조가 지하철공사와의 대표권 시비, 단체협약에 대한 지하철공사측의 불성실한



◇지난 12월 7, 8일 양일간 세종대에서 열렸던 '양심수'를 위한 노래의 밤' 공연중인 소리물결

태도 등에 따라 파업선고를 내자, 소리물결은 파업여부에 따른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정리를 마친 후 소리물결 회원들은 되찾은 보금자리에서 둘러앉아 구

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살아있는 노동자의 힘과 투쟁정신으로 떠나며 더 곱들여주는 듯 하였다.

(현)

## 캠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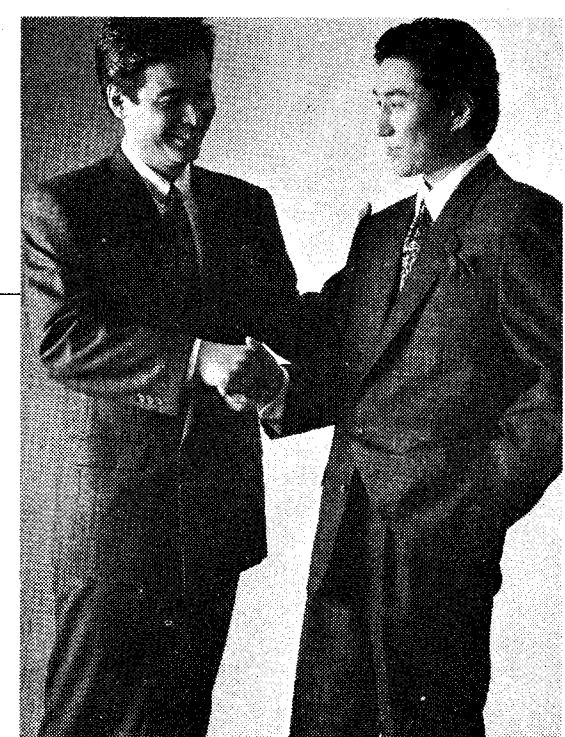


# 젊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역경을 딛고 올라선 젊음은 더욱 위대합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영광과 좌절 그리고 극복,  
그것은 젊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의 좌절은 내일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대담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실패의 확률은 높지만  
소심한 사람보다 과감한 사람이 보다 쉽게 깨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걸음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역사는 온실 속에서 화조처럼 자란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는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음을 위한 창조자와 부름입니다.  
큰 새는 나뭇가지에 등지를 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매지를 차고 오르는 큰 새,  
그것이 바로 젊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열렬한 젊음의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캠브리지사의 신사들 —



주 캠프리지멤버스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1-15 캠프리지빌딩 우편번호 137-071 전화 (02) 586-0000